



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¹⁾

장윤선 부연구위원
양계민 선임연구위원
정윤미 전문연구위원

개요

- 조사목적** ▶ 본 연구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우리나라 다문화 지형을 고려한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패널을 구축하여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종단연구임.
- ▶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추이를 파악하고,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조사대상** ▶ 2011년 구축한 1기 패널에 이어 2019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기 패널을 구축함.
- 2기 패널 학생: 2,246명
– 2기 패널 어머니: 2,223명
- ※ 한 가정에 쌍둥이 또는 동일한 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조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학생 수와 어머니 수의 차이가 발생함.
- 조사방법** ▶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(TAPI: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)
- 조사기간** ▶ 2019년부터 매년 7월 ~ 12월(2기 패널 학생이 24세가 되는 2032년까지 조사 예정)

1) 본 블루노트 통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고유과제 보고서인 '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: 총괄보고서'의 일부 연구결과를 발췌·요약한 것임.

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및 유형

-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‘본인 또는 가족이 이주의 배경을 가지는 9~24세 사이의 청소년’으로 정의하였음. 단, 북한이탈주민은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함.
 - 본인의 출생지와 가족의 유형에 따라 ‘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’, ‘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’, ‘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’, ‘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’로 집단을 구분함.
 - 이하의 내용은 2019년에 구축된 2기 패널의 1차년도 조사 자료를 아래의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임.

	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	외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
국내출생	•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	•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
국외출생	•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	•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

그림 1 다문화청소년 유형

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

- 다문화청소년의 ‘학교생활적응’ 정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을 보임.
 -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‘학교생활적응’ 평균이 3.30으로 다른 다문화청소년 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고,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은 3.21로 다소 낮으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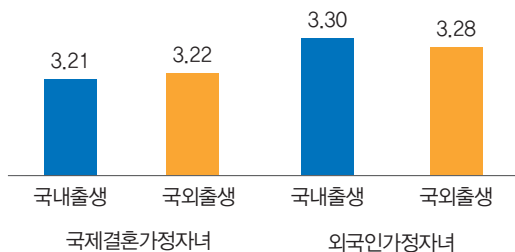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학교생활적응 (4점 척도)

- '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운 점'에 대해서는 '별 어려움이 없다'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모든 유형에서 60% 이상으로 가장 많았음.
- '별 어려움이 없다'는 응답의 비율은 국외출생 청소년이 국내출생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나타남.
- 국내출생 청소년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'학교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점(국제결혼가정자녀 17.1%, 외국인가정자녀 13.3%)'을 어려움으로 크게 느끼고 있었음.
- 같은 국외출생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족 유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자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교과 공부를 위한 한국어 능력 수준이 부족하여 '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(18.0%)'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반면, 외국인가정자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수준이 낮아 '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점(16.5%)'을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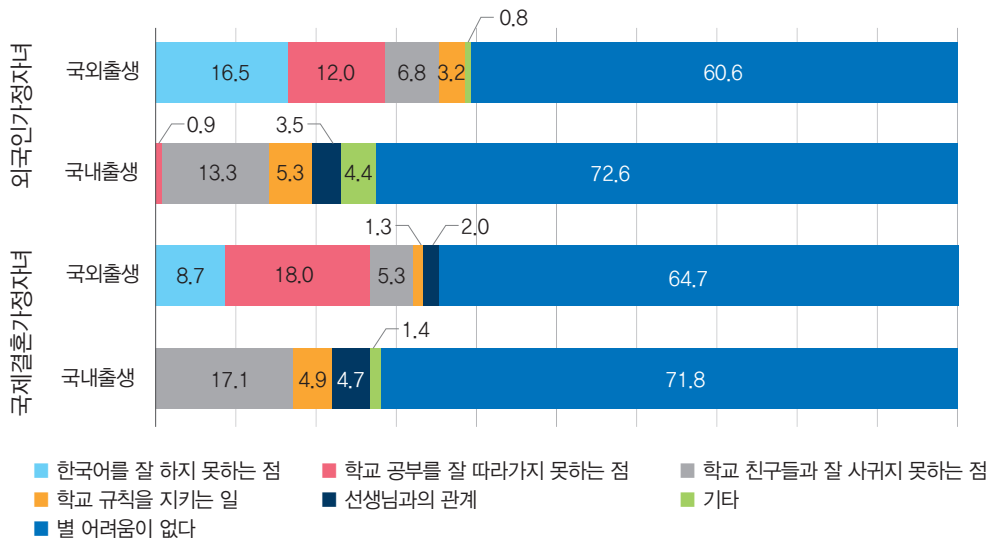


그림 3 학교생활 전반에서의 어려운 점(%)

■ 다문화청소년이 생각하는 '지난학기 나의 성적'은 보통 이상 수준인 반면, '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'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음.

- 주관적 학업성취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(평균 3.42)이고,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(평균 3.33)가 다른 집단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.
-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(평균 3.00)가 가장 높았고,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자녀(평균 2.84)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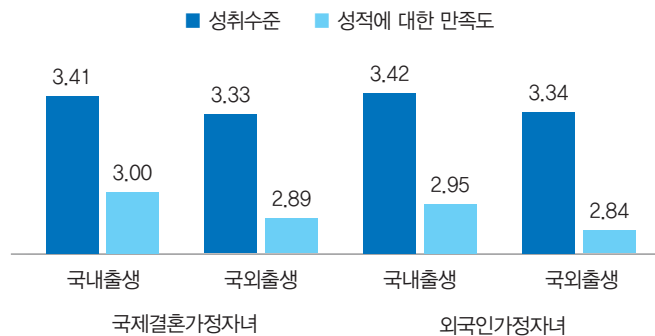


그림 4 학업성취수준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 (5점 척도)

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·사회적응

■ 다문화청소년의 '자아존중감'과 '삶의 만족도'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인 심리적응 상태를 보여주었음.

- '자아존중감(평균 3.40)'과 '삶의 만족도(평균 3.43)'는 모두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가장 높았음.
- '자아존중감'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(평균 3.27)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고, '삶의 만족도'는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(평균 3.30)가 가장 낮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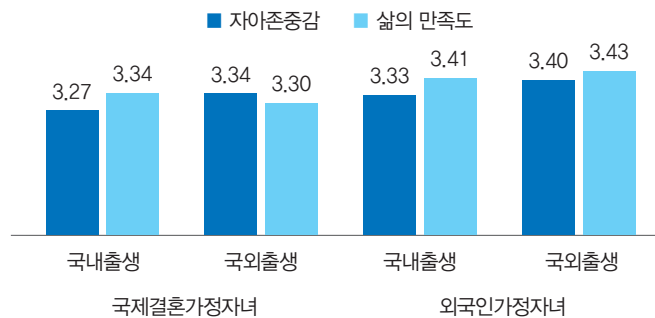


그림 5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(4점 척도)

■ ‘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’와 ‘우울’ 정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음.

- ‘일상생활 스트레스’는 국제결혼가정자녀(국내출생 2.17, 국외출생 2.17)가 외국인가정자녀(국내출생 1.95, 국외출생 1.88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,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였음.
- ‘우울’ 역시 국제결혼가정자녀(국내출생 1.42, 국외출생 1.42)가 외국인가정자녀(국내출생 1.30, 국외출생 1.32)보다 다소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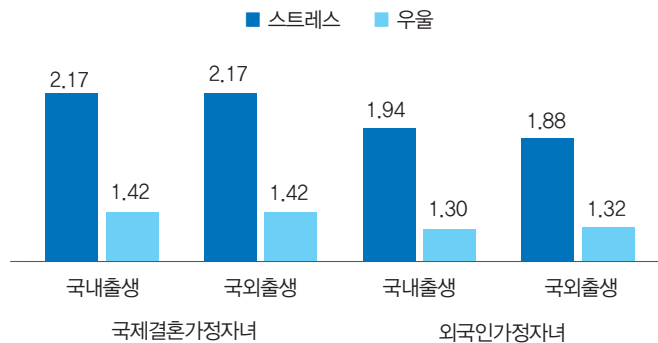


그림 6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(4점 척도)

■ 다문화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, 정신적 건강 모두 보통 이상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.

- ‘신체적 건강상태’에 대한 국제결혼가정자녀(국내출생 3.45, 국외출생 3.48)의 주관적 평가는 외국인가정자녀(국내출생 3.57, 국외출생 3.57)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.
- ‘정신적 건강상태’ 역시 국제결혼가정자녀(국내출생 3.49, 국외출생 3.49)가 외국인가정자녀(국내출생 3.67, 국외출생 3.58)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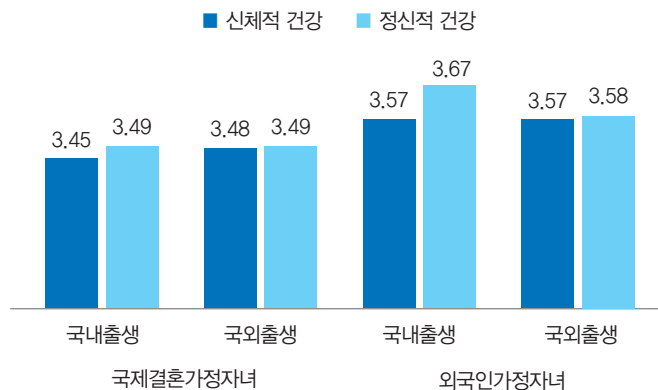


그림 7 주관적 건강상태: 신체적 & 정신적 건강 (4점 척도)

4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와 향후 계획

■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은 대학교 이상 진학하는 것을 희망하였음.

-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학교 이상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(대학 70.7%, 대학원 8.4%)이 상대적으로 낮았고,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8.1%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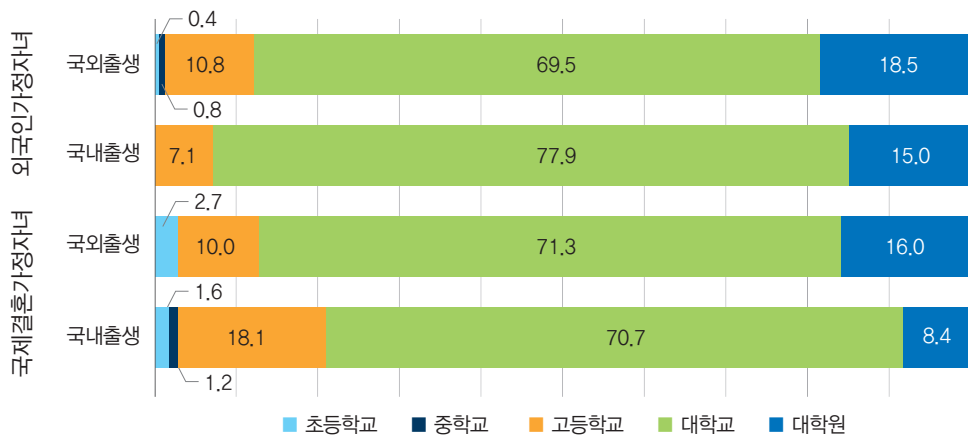


그림 8 희망 교육수준(%)

■ 향후 '한국'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, '아직 잘 모르겠다'는 응답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.

- 향후 일하고 싶은 곳으로 '한국'을 선택한 비율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(72.1%)가 가장 높았고, '본국 또는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'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(7.6%)가 가장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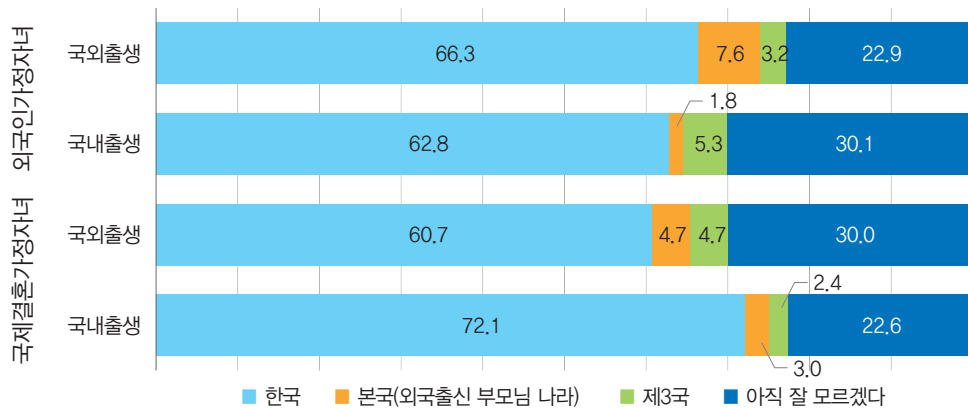


그림 9 향후 일하고 싶은 나라(%)

5 다문화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적 지지

■ 다문화청소년이 느끼는 부모, 친구,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비해 외국인가정자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부모의 지지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(평균 3.53),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(평균 3.44),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(평균 3.38),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(평균 3.31) 순으로 높았음.
- 친구의 지지 정도는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(평균 3.96)가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.
- 교사의 지지는 가정의 유형보다는 청소년의 출생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, 국외출생 청소년(국제결혼가정자녀 3.92 외국인가정자녀 3.91)이 국내출생 청소년(국제결혼가정자녀 3.76, 외국인가정자녀 3.78)에 비해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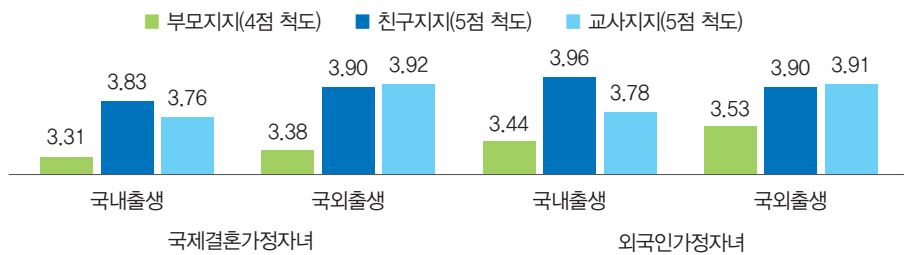


그림 10 부모, 친구, 교사의 지지

■ 다문화청소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체로 학교 안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, 학교 밖에서는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음.

- 학교 안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으로 '담임 선생님'을 선택한 경우가 전체의 90% 이상으로 가장 많았음.
- 다문화청소년이 생각하는 학교 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으로는 '학원 선생님'이 가장 많았고, '이웃 어른들'과 '공부방 선생님'을 선택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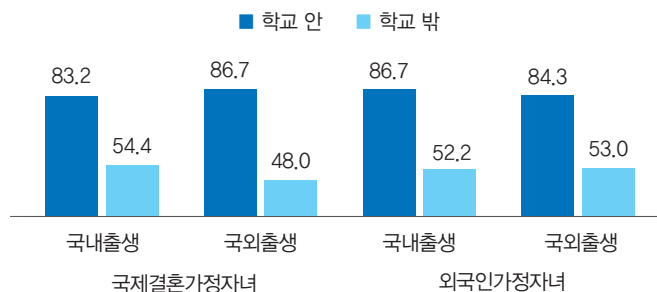


그림 11 학교 안과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의 존재(%)

6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

■ 본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집단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음.

-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81.5%는 본인을 '한국사람'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는 48.0%만 본인을 '한국사람'이라고 생각하였고, 35.5%는 '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본인이 태어난 나라의 사람이기도 하다'고 인식하였음.
- 외국인가정자녀도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는 본인을 '한국사람'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4.9%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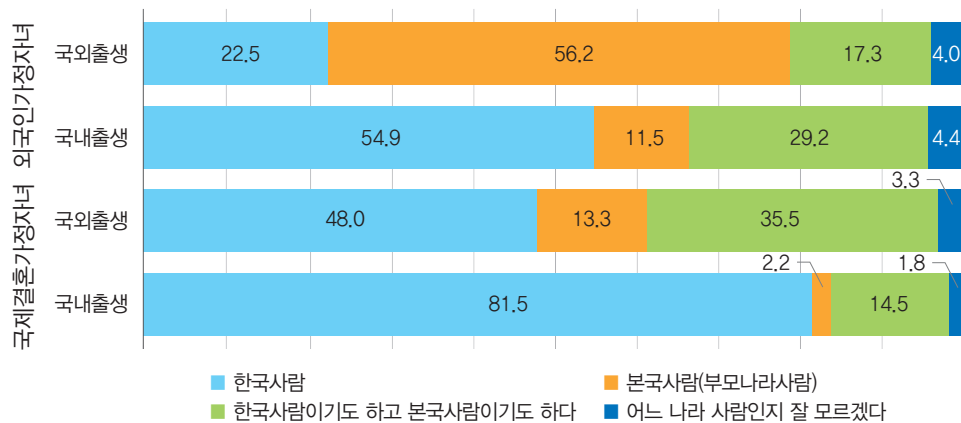


그림 12 국가정체성(%)

■ '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을 받는 것 같다', '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' 등의 문항을 통해 측정한 다문화청소년이 본인을 한국인과 동일시하는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.

-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(평균 2.52)의 한국인과의 동일시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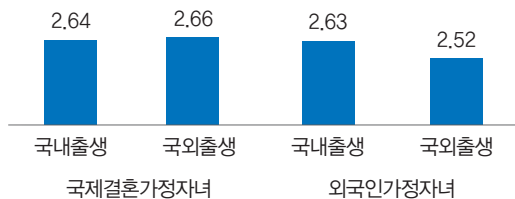


그림 13 한국인과 동일시 수준 (4점 척도)